

기후변화-생태계 상관관계 밝힌다!

환경부, 국가기초 생태연구 10년 계획 수립 ... 유해조수 천적 개발도

정부는 기후변화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동안 연구·분석하는 <국가기초 생태연구>를 추진해 생태계 보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기초 생태연구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 아열대, 온대, 아한대 등 각 기후대를 대표하는 산림과 농경지, 강과 호수, 갯벌과 모래언덕 등 56개 지점을 선정해 장기간에 걸쳐 변화상을 조사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대책 수립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동해안과 남해안의 암반지대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조류가 급증해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까치를 비롯한 유해조수와 붉은귀거북 등 외래종이 농작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 천적 개발 등 생태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100년 후 국내기후가 아영대로 변해 소나무가 사라지고 외래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으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기초 생태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8>